



<국내 수출 사과의 주요 대상 국가별 수출량 및 수출액>

최근 국내 사과원에서는 살포 프로그램에 따라 연평균 약 10~15회 정도 농약을 살포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Maximum Residue Limit, MRL)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 국가별로 안전사용 기준에 적합한 살균제 및 살충제를 선별하여 살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사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대만 수출사과에서 미등록 약제가 검출되어 전수검사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대만으로의 수출량이 60%이상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사과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정부의 요청에 의해 대만에 등록된 약제가 증가하고, 잔류기준이 완화되어 수출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국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과병해는 탄저병, 겹무늬썩음병, 갈색무늬병, 점무늬낙엽병등이 있으며, 이러한 병해는 성숙과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어 사과 과실의 상품성과 생산량에 크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본 연구팀에서 새롭게 진단한 *Fusarium* spp.에 의한 썩음병도 저장과실에서 주요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과에 발생하는 주요한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 살균제 살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어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작부방식의 변화와 원인 미상의 이상 질병의 출현 및 살균제 저항성균의 출몰로 인하여, 새로운 대체 살균제 개발이나 선별 및 살포방법이나 살포시기의 조정 등 살균제 살포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사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